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

안녕하십니까. 도립대 10기 이○○입니다.
수험 비용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,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
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남깁니다.

[합격 정보]
지역: 충남청
나이: 29세
필기점수: 187.5점
체력점수: 37점 (가산점 1점)
환산점수: 55.76점 (1배수: 57.2점)
---

1 수험 전략
저는 수험생활을 시작할 때 “빠르게 치고 빠지자”는 마인드를 가졌습니다.
필기는 컷으로 통과, 체력과 면접으로 뒤집자는 전략이었습니다.
---

2 과목별 공부법
- 헌법 37.5점
기본서 또는 기출, 동형모의고사, 최신판례 위주로 공부했습니다.
모의고사에선 항상 40점 이상 나왔지만, 실제 시험에서는 37.5점이었습니다.
실점 가능성도 감안해서 마지막까지 안 외워지는 판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.

- 형사법 85점
먼저 공부 방법의 틀을 잡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.
처음에는 “전체 페이지를 다 외워야 하나...”라는 부담감에 공부가 싫었던 적도 있었지만,
낮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차근차근, 반복하다 보니 점점 성적이 올랐습니다.
또한 형법은 법리만 정확히 알면, 모르는 판례가 나와도 합리적 추론으로

맞출 수 있는 과목이라 느꼈습니다.
강사가 꾸려놓은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도 충분히 고득점 가능합니다.

- 경찰학 65점
1타 강사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.
최신법령, A급 법령/이론, 행정법 위주로 요약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
부족한 부분은 모의고사 틀린 문제를 분석하며 보완했습니다.
점수가 아쉬웠지만, 결국 요약 + 반복 + 모고 빵꾸난곳 채우기가 핵심인 과목인 것 같습니다.
---
3 체력 준비
체력은 또 하나의 과목입니다.
“순환식이면 안 해도 되겠지…”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.
저는 필기 공부 중에도 기초 체력 훈련은 병행했습니다.
실제로 작년 2차 특채에서 주변 지인이 순환식에서 과락으로 탈락하는 걸 보고, 체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
운동은 공부 효율과 멘탈 관리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, 끝까지 꾸준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면접에서 체력 관리 경험은 좋은 소재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요소입니다!
---

4 면접 준비
필기+체력 후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니 1배수와 약 -1.2점 ~ -1.5점 차이가 났습니다.
솔직히 최종 불합격의 무서움이 떠올라 필기 공부와 면접을 병행하며 준비했습니다.

면접 준비 루틴 (4월 후반~6월 초)
06시 기상 → 아침 식사
07시~10시 필기 공부
11시~13시 시사 이슈 및 개별면접 경험 정리
14시~18시 면접학원 or 스터디원들과 모의 면접

20시까지 쉬며 뉴스 시청
20시~22시 한강런 or 헬스장
23시 취침

면접
저는 면접은 운 + 기세 +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.
준비는 철저히 하되, 자기 소신대로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.
면접 후기 보면 “환산 순이다, 뒤집기 힘들다”는 말 많지만, 저는 실제로 뒤집고 합격했습니다.
면접 비중이 5% 늘어난 만큼,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기회는 충분합니다.

마무리하며,
긴 수험생활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직접 얼굴 보고 인사드려야 했는데, 이렇게 후기로나마 마음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.
제 후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.
포기하지 말고, 자기 페이스대로 밀어붙이면 분명 합격할 수 있습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